

고민 많은 해종이에겐 《열네 살》을



얇전한 창제에겐 《80일간의 세계일주》를



조주희 | 서울 대광고등학교 교사

책은 다양하다. 그리고 그 책을 읽을 학생들 역시 다양하다. 고등학교 1학년 용이는 여간 조용한 게 아니다. 곳곳하게 앉은 자세와 달리 대답은, 항상 아이들 목소리에 묻히고 만다. “뭐라고, 용이야?” 지목해서 물어보면, 얼굴이 정말 ‘시뻘개’진다. 그래서 칭찬해 주고 싶어도 꼭꼭 내가 참는 편이다. 반면, 동갑내기 기태는 종알종알 쉬지 않는다. “야, 선생님이 324 페이지 피래!” 수업에 도움도 된다. 하지만 “아이스크림 사주신데!” 가끔 없는 이야기도 만들어낸다. 아이들은 다르다. 정말 너무 다르다. 어려운 책을 척척 읽는 아이도 있고, ‘장발장’이 누군지도 모르는 학생도 수두룩하다. 학교가 즐거운 학생도 있지만, 자퇴를 고려하는 학생도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그 학생 모두가 읽으면 좋을 책을 골라야 한다. 그래서 나는 책을 고르는데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고심을 했다.

그 고심 중에는 도대체 “왜 학생들이 책을 읽어야 할까?”라는 근본적인 문제도 포함되어 있었다. 실제로 학생들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읽지 않아도 텔레비전으로 즐겁고, 스타크래프트로 재미난다. 요새는 싸이월드라는 사이트에서 미니홈피를 운영하는 ‘싸이질’도 한몫을 단단히 한다. 책을 꼭 읽지 않아도 수학 100점, 심지어 국어도 100점을 받을 수 있다. 필요성을 상실하면 자율이 될 수 없다. 타율학습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나마 가르칠 시간이 없다. 나의 경우를 봐도, 1년에 300페이지가 넘는 국어책 2권을 끝내려면, 서둘러 진도를 나가야 한다. 그래서 결국 독서교육이라는 것은 수업 시작 10분여의 동기유발을 위한 책 소개에 그치거나, 혹은 원고지 10장의 수행평가 항목이 되거나, 어떤 때는 교육적 차원의 ‘반성문’이 되고 만다. 어쩌면, 독

서교육은 현실 불가능한 달갑지 않은 교육이 되어 버린지도 모르겠다.

무리한 시작을 피했다. ‘모든’ 학생이라는 욕심도 버렸다. 한두 명 맘속에 품고 있던 학생부터 두드렸다. 고전소설, 권장도서, 수능에 나오는 도서 등의 보기 좋은 허울도 버렸다. 교사라는 내 수준도 버리고, 교훈성도 버렸다. 모든 조건을 버리니 학생만 보였다. 그래서 한 명 한 명 걸맞은 책으로, 넉넉한 시간을 두고 진행했다. 이제 빠지도 더하지도 않은 그 날것을 전하고자 한다.

결코 가볍지 않은 나이 열일곱.
해종에게 《열네 살》을 권하다

해종이는 콩같이 둥글 단단한 학생이다. 그리고 국어시간에 나를 도와주는 ‘국어반장’이다. 뭘 시켜도 똑 소리가 나는데, 공책을 건어 올 때도 1번부터 순서대로 꼼꼼하게 챙겨오고 시간도 칼같이 지켜낸다. 그런데 요새 들어 해종이 눈빛이 침울하다. 보아하니 친구 문제인 듯하다. 한번은 교무실에 들렀기에 “뭘 일이 있냐” 살짝 물어보았는데, 아니라며 냉큼 사라졌다. 자존심도 상당히 아쉬운 소릴 할 아이가 아니었지만 그대로 둔다면 생채기 꽤나 날 듯하였다. 그래서 다니구치 지로의 만화책 《열네 살》을 권해보았다. 처음엔 약간 의아해하는 눈치더니 “넵!” 허리 굽혀 인사하고는 돌아갔다.

《열네 살》은 가볍지 않은 주제를 무겁지 않게 그려낸 만화책이다. 열네 살. 우리나라로 치면 중학교 1학년이다. 마흔여덟 살의 히로시는 어느 봄날, 열네 살의 과거로 돌아간다. 신기하게도 기억은 마흔여덟 그대로인데, 몸도 장소도 38년 전이다. 놀라는 것도 잠시, 그는 열네 살의 생활을 다시 시작한



《열네살》(1,2권)
다니구치 지로 지음 | 양역관 옮김 | 샘터 | 212쪽 내외 | 각권 값 7,000원

《80일간의 세계일주》
쥘 베른 지음 | 김석희 옮김 | 열림원 | 360쪽 | 값 9,000원

다. 대학교까지 나온 그에게 중학교 생활은 식은 죽 먹기다. 선생님들이 놀랄 정도로 성적이 우수해지고, 달리기도 빨라지고, 싸움에도 능해진다. 이전 과거 중학교 시절에 동경했던 미소녀조차도 그에게 먼저 접근해 온다. 그러나 그는 마냥 좋을 수가 없다. 과거 열네 살 때 가출한 아버지를 붙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 며칠 후면 아버지가 가출하는 날이다. 히로시는 고민한다. 아버지는 왜 가출했을까? 나는 아버지를 붙잡아야 하나? 나는 또 이렇게 열네 살을 살아가야 하나? 열네 살 히로시의 고민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다. “만약에, 나에게 그 때의 순간이 다시 주어진다면...” 하고 과거를 그리워하는 사람은 많다. 특히 “다시 학창시절로 돌아간다면...”이라며 우리는 얼마나 많이 아쉬워하는가. 이제 교사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나 또한 그러하다. 그러나 그 시절엔 또 얼마나 단단하지 않은 자아自我 때문에, 스스로를 자학했던지... 나이란 그만큼의 고민을 뚫어야 언어지는 결과인 듯하다.

이튿날, 해종이가 왔다. 간밤에 잠을 못 잤다며 쾅한 눈을 껌벅거렸다. 어디 이 만화책 한 권으로 그 고민이 다 해결되랴. 우리는 서로 씩 웃었다. 무슨 생각이 오고 갔는지는 몰라도, 해종이는 다시 그 전처럼 수업에 열심이다. 누가 대신 거쳐주지 않을 열일곱의 나이를 가지고.

**암전한 창제의 여행담,
쥘 베른의 《80일간의 세계일주》**

제목 그대로 영국신사 필리어스 포그는 80일간의 세계일주를 떠난다. 기한 내에 들어와야 하는 내기 때문이다. 암전한 창제는 《80일간의 세계일주》를 권해 주자, 고개 한 번 끄덕이고 사라졌다.

이 글을 쓴 조주희 선생님은
현재 대광고등학교 국어교사이며 문학반을 담당하고 있다.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및 동 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쳤고, 대학교와 대학원 시절 CBS 다큐멘터리 작가, 리포터, 〈여성동아〉 자유기고가로 활동한 바 있다.

“어제는 기술 숙제 때문에 자료 찾느라 도서관에서 밤늦게 들어왔어요. 지금 이렇게 선생님과 이야기 할 때도 친구들은 반에서 수행평가 숙제를 하고 있을 거예요.” 기말시험이 다가오고 있었다. 아이들은 과목마다 나오는 수많은 수행평가를 치러내느라 정신이 없었다. 이렇게 쪽지시험, 수행평가를 허겁지겁 끝내고 나면 일주일간 기말시험을 치르고 방학이 되고 또 개학이 오고... 아이들은 바쁘다. 책 한 권을 읽는다는 건 정성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소리다.

“선생님! 이 책은 내용이 허황된 것 같아요. 80일간 여행할 수 있다고 말한 걸 지키겠다고 여행을 가는 주인공 ‘포그’란 사람, 우스워요. 무엇보다 죽음에서 구해 준 그 아우다란 여자랑 결혼한다는 거, 갑자기 그렇게 맘을 먹는데, 정말 무리 같아요.” 창제는 ‘재밌어요, 좋아요’ 등의 틀에 박힌 답안을 피했다. 멋진 답이다. 문학은 좀 흠집을 내며 읽어야 한다. “또 억지스러운 건, 위험에 처할 때마다 돈을 펄펄 쓰는 거요. 돈만으로 해결하려는 거 사치스러워요.” 창제는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자, 어려워진 형편 속에서 홀로 검정고시를 보아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혼자 또 다른 공간을 걸어 온 창제. 이 아이에게는 다른 아이들에게 보이지 않는 눈빛이 있다. “나중에 뭘 할지는 아..., 잘 모르겠어요.” 토끼 같이 생긴 눈을 뚫그랗게 뜨고 창제가 배시시 웃는다. 소설도 창제가 읽듯이 어떤 결정도 그가 내리는 것이다. 교사가 되길 참 잘했던 생각이 든다. 이렇게 아이들의 숨겨진 재능을 파악한다는 건 얼마나 신나는 일인가. 세계 일주보다 100배는 재미난다. 이렇게 아이들은 자신에 걸맞게 읽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자라고 있다. **쥘**